

벤처지원, 또다시 할 것인가?

지난 7월 19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는 한국공학한림원과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로

제9회 한국공학한림원 · 한경 토론타당이 열렸다. '벤처지원, 또다시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이일규 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 한국기술투자 서갑수 회장,

마크애니 최중욱 대표, KAIST 김병운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제발표 | <벤처지원, 또다시 할 것인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이일규 국장

사 회 | KIST 금동화 책임연구원

패 널 |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 한국기술투자 서갑수 회장, 마크애니 최중욱 대표, KAIST 김병운 교수

주 최 |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경제신문사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정책역량 집중하겠다

중소기업청 이일규 창업벤처국장 _ 그간 벤처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의 한계에 따른 대응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벤처특별법 제정 및 창업지원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그 결과 벤처기업이 생산, 수출, 고용면에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벤처정책의 근간인 벤처확인제도가 질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벤처비리를 유발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2007년말 벤처특별법 폐지에 맞춰 참여정부는 다양한 신벤처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벤처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고도화, 정부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캐피탈 등 민간 시장원리 적용, 창업 중심에서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개념을 혁신신도형 중소기업으로 재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 창출 시장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선택과 집중' 원리에 입각, 신성장산업분야의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러한 전략 아래 6가지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첫번째는 전문창업대학원 운영과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실시,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등을 통한 '신산업 창업 기반 확충'이다.

두번째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FOF) 조성과 벤처캐피탈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의 '시장중심의 투자시스템 구축'이다.

세번째 정책 개선안은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지원과 기술평가업무를 '기술평가단' 독립을 통한 '혁신적 기술력 제고'이다.

또 벤처중합상사 설립과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스타펀드 결성 등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 확충',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 및 추진을 통해 '성숙단계에서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업을 우대하는 관행 정착을 통한 '자율적 재도약기반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향후 신벤처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8월초 T/F팀을 구성, 11월 중으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다.



자유로운 퇴출시스템 정착 시급하다

협회 장흥순 회장 _ 벤처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 맞는 기업유형이다. 그런데도 창업, 정책적 오류, 부실기업 양산 등으로 인해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간의 시행착오는 성공이나 실패냐를 떠나 엄청난 사회적 자산이다. 벤처정책을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벤처가 죽어야 산다는 문화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당면한 큰 문제는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퇴출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죽어야 될 경우 죽을 수 있는 퇴출시스템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업시 개인 연대보증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회사를 접고 싶어도 접지 못한다. '다산다사(多産多死)' 하는 벤처의 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과 '우리식 벤처지원책' 이 필요하다.

한국기술투자 서갑수 회장 _ 세계적 벤처를 1년에 10개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벤처캐피털이 튼튼해야 벤처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벤처캐피털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공돈'으로 생각하고 몰쓰듯 써낸 일부 창업주 때문에 벤처캐피털이 고사하고 있다.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 보증서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창업주 역시 스톡옵션을 일부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스스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발적인 풍토가 마련되어야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열릴 것이다.

마크애니 최종욱 대표 _ 마크애니의 문서보안 제품 중 하나는 국내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데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난해 65명 직원이 27여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참고로 마크애니캐펜은 20여 명이 단발계약으로 30억원 매출을 올렸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젠 성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벤처의 사망을 지원하는 벤처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남은 벤처도 제대로 이익을 창출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과거처럼 다수 기업에 조금씩 지원하는 평준화정책이 아니라 소수기업을 정예로 육성하는 골짜기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KAIST 김병운 교수 _ 벤처투자 방법을 확 바꿔야 한다. 개인담보요구 등 벤처의 생성과 소멸을 방해할 수 있는 투자정책을 개선하고 모험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시장원리에 맞춰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모태펀드, 기술평가단 등 새로운 지원책의 경우, 내용은 좋지만 방법론에 대해선 의문이 생긴다. 누가 운영을 하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고, 그 후에는 시장경제에 맞춰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청 이일규 창업벤처국장 _ 오늘 있었던 논의들을 감안하여 올바른 벤처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